

존경하는 김풍운목사님과 벅스카운티 성도여러분께 2015 년 새해인사와 케냐선교소식을 전합니다.

1 월 4 일, 2015 년 첫주일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선교관에서 잠시 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찬양소리와 설교에 쉼을 포기하고 나와봅니다. 내일 시작하는 2015 년 첫학기를 기념하는 학생들의 모임이 예배후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 이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에서 세례 받은 11 명의 신도들, 학업의 시작을 예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학생들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돌연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4 년도에도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사역에 열심으로 임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 여러가지 모습으로 저희들과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확장에 동참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작년 마지막 학기말에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을 모두 불러다가 음식을 나누고 성경공부를하고 성경을 나누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후의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시편 1 편의 복된자처럼 되라고 격려하며 졸업선물로 맛사이/스와힐리어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후에 음식을 다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박, 껌콘, 아이스크림등을 처음으로 먹어보는 기회가 되었지요. 먼저 식사를 하고 간식을 하였기에 많은 아이들이 음식을 남겨서 다른 아이들과 나누든지 또는 나중에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녹아서 우유처럼 되버린 아이스크림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껌콘을 저희들보다 어린학생들과 나누는 모습이 가슴에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더 줄것이니 성경공부 더 하자, 나의 아이들아!

고등학생들 성경공부와 더불어서 주일날 교인들을 상대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예배는 오랜 시간동안 드립니다. 도시에서는 2 시간 정도 드리고 시골에서는 4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세상의 급박함이 없으니 예배를 오래 드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구전 문화속에서 사는 이들의 예배 내용은 말씀이 많이 부족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4 시간의 예배중 1 시간을 성경을 가르치는데 쓰고 있습니다. 2015 년에는 호세아로 시작해서 소선지자서의 공부를 통해서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다른 이에게는 고난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맛사이 오지의 교회개척 문제로 “기웅가”라는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해발 1600m 에서 교회까지 급경사로 2090m 까지 올라가는 험한길이었습니다. 전혀 길이라고 표현할수 없는 야산의 돌밭을 전륜구동(4x4)으로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 저희가 사역하는 맛사이 전지역이 확트이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같이 동행한 이미애선교사에게는 혈압이 올라가는 험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맛사이에서 25 년째 오지로 온갖 험한길들을 다녀본 저로서는 산행길이 새로운 경험으로 또한 한편으로는 위안으로 다가오는 흥미로운 경험이었으나 다른 이에게는 고난의 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의 삶을 고난의 길이 아니라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의 길, 즐거운 길로서 힘차게 나가고 싶습니다. 매일 매일을 새롭게 선교지에서 사는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길에서 3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역의 특성상 고립된 지역인 “올로이카”지역에서 교회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말레티사의 교회건축은 공사비용(2 만불)의 예산 초과로 임시 증축만하고 더 급박하게 건축이 필요한 올로이카 지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 흔한 양철지붕의 집 한채도 없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손에서 성경을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맹이라서 성경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태양열충전 성경통독기의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마침 미국의 한 목사님이 통독기 100 개를 만들수 있는 지정헌금 4 천불을 보내 주셔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올로이카 지역만이 아니라, 맛사이



올로이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경청하는 교인들과 예배후에 성도들이
머리에 손을 올려놓으며 인사를 하는 모습



쇠를 자르고 용접해서
지붕이 올라가는
삼각대를 만든 모습

오지지역의 성도들에게 글을 읽지 못하면 통독기를, 글을 읽을수 있으면 성경책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번 기도편지 이후에 짧은 우기철이 있었습니다. 이때 받아서 모아 놓은 빗물로 평소보다는 풍족하게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러 가지 않는다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온 집안이 온갖 벌레의 전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들의 젖냄새와 소똥으로 인해서 인산 인해로 몰려와서 음식을 할수 없게 만드는 파리떼와 더불어 온갖 딱정벌레와 땅벌레 그리고 전갈까지 집안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로 비가 오지 않으면 건조한 기운으로 벌레들이 다 없어지니 위안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어서 물과 전쟁을 해야하니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맛사이들에게는 당연히 물이지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우물프로젝트는 지난 기도편지를 읽고 오래전에 단기팀으로 방문한 자매가 헌금하고 저희들도 보태어 종자돈 천불이 3 천불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토지 특성상 물이 있는 곳이 깊고 또한 큰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에 3 만불정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은 몇분(교회)이 5 천불에서 만불정도만 후원해주시면 맛사이 땅에 항상 풍족하게 축복의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슬렘의 테러가 이제는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호주에서, 중동, 미국, 아프리카 어느 곳이던지 기독교인이 있고 모슬렘이 있으면 테러라는 모습으로 이들의 갈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에도 머리 숙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 개월동안에 기독교인 36 명이 모슬렘들에게 참수 당하고 경찰 21 명이 소강도들에게 죽음을 당하는등 케냐가 위험하다고 할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시는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케냐에서 새해 첫 소식을 드렸습니다. 살롬!



300 여명의 맛사이 사역자들이 비즐교회에서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모습

2015 년 1 월 12 일, 김명수, 이미애선교사올림

[중보 기도부탁드립니다]

* 케냐-소말리아와의 전쟁으로 케냐안에서 모슬렘들의 테러가 구체적으로 또한 저희 주변에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현지인들과 저희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 나이로비와 맛사이의 강의 사역, 선교센터안의 학교사역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알아가게 하는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맛사이 지역 선교관과 학교, 교회, 부족민들이 사용할 우물과 집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 맛사이 지역에 있는 교회중 건물이 없는 4 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 가족 모두의 건강과, 학업과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함 인도함과 동행이 있도록,

* 새학기에 시작하는 이슬람학, 선교학, 히브리어문법, 히브리어성서해석학의 강의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신실한 제자를 만드는 강의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연락처: Stephen Kim, P.O. Box 1012-00621 Village Market, Nairobi, Kenya

stephenkim63@hotmail.com (hp) 케냐 +254-715-176 551, +254-735-262 760

한국후원: 제일은행, 이미애 276-20-091461, 미국: Wells Fargo Bank, TX (Bank #: 112 000 066)

Stephen M. Kim, Acc # 731 206 8450, 케냐후원 방법은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